

노동자 연대

Workers' Solidarity **“만국의 노동자여, 단결하라!”**

wspaper.org

제269호 | 2018년 12월 6일 ~ 12월 12일 | 값 1,000원

ISSN 2005-8217



발행인: 김인식 편집인: 김인식 사업자 명칭: (주)레프트미디어
제호: 노동자 연대 발행 연월일(창간호): 2009년 3월 14일
인쇄인: (주)아이피디 이병동 등록번호: 서울다08179 (주간)
등록연월일: 2009년 1월 12일 주소: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-16 4층
전화: 02-777-2792 팩스: 02-6499-2791
제보: 02-777-2791 E-Mail: ws@wspaper.org



▶ 관련 기사 2면

노동자 연대

1,000원

- ★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맞서, 경사노위 불참뿐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
- ★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할까?
- ★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



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,
경사노위 불참뿐 아니라
투쟁이 필요하다

3면

김정은 연내
서울 답방할까?

4면

급진적 페미니즘과
분리적 페미니즘

6~7면

서울대 최무영 물리학 교수 인터뷰
“새만금 햇빛·풍력 발전은
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”

8면

저임금 일자리
양산하는
광주형 일자리

12면

협력이익공유제,
실효성도 없고
노동자들에게 해롭다

10면

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
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

9면

★ 서울대 최무영 물리학 교수 인터뷰

“새만금 햇빛·풍력 발전은
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”

★ 저임금 양산하는 광주형 일자리

★ 협력이익공유제,
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

★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
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